

일부 군병원 환자의 입원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김희용

(국군간호사관학교·아동간호학교실)

—목 차—

I.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 B. 연구의 목적
- C. 물어의 정의

II. 문헌고찰

- A. 불안개념의 견해
- B.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 B. 연구도구
- C.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IV. 연구결과 및 고찰

- A.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B. 불안의 검토 및 측정
- C. 불안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영문초록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발전, 물질문명 및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질병,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환자가 병원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단시간 또는 장시간

머무르는 동안 환자에게는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할 기본요구가 있을 것이다. 요구한 결핍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가 지연되며 끝으로 요구의 충족이 환자의 회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¹⁾.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큰 사건이며 이로 인하여 환자는 공포,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므로 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한 진단, 완전한 회복의 여부, 불구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가족 및 직장에 대한 염려와 이에 따른 경제문제, 새로운 병원환경의 적응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이것들로 인하여 심리적인 불안과 자극을 받게된다^{2),3)}. 이와같이 환자들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불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조사에 있어서 군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청년기에 속한 환자들이며 이들은 청년기의 특징인 인격의 완전한 성숙과 더불어 대인관계나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용통성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야만 하는 시기이다⁴⁾. 따라서 이들이 신체기능의 평행이 깨어졌을 때는 많은 짐작속에서 불안을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런 점에서 입원환자의 회복에 장애를 주고 심리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안정도를 파악하므로써 효과적인 간호방법을 모색하여 군 간호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경험하는 불안내용 및 정도를 파악하여 불안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효과

1) Yronne M. William, "Methodologic Dilemmas in tapping the concept of patient need," *Nursing Research.*, Vol. 27, No. 3 (1978), p. 174.

2) 김조자, "수술전 심리간호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2권 제 1호(6월, 1971), p. 97.

3) 김정화, "의료팀에 의하여 발생되는 입원환자의 불안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6권 제 2호(12월, 1976), p. 18.

4) 이병윤, 곽동일, 정신과 간호학, (서울:수문사, 1978), 12면.

적인 간호를 모색하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원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불안내용을 검토하고 측정한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도와의 관계를 파악 한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내용과의 관계를 파악 한다.

C. 용어의 정의

입원불안(hospitalization anxiety) : 환자들이 치료와 간호를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병원에서 겪는 정서적인 두려움을 내포한 열려감을 말한다.

II. 문헌고찰

불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위해 불안의 경의 및 개념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선행연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A. 불안개념의 견해

Neylan⁵⁾은 불안은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나 역할에 직면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 Hans Selye⁶⁾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피곤을 느끼고 신경과 밸이 되고 질병에 걸리는 것은 소위 불안감으로 인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현상이라고 했으며, Lucente와 Fleck⁷⁾는 불안은 환경의 변화로써 인식되어지고 개인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불쾌하고 소름끼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Freud⁸⁾는 불안은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자아와 본능사이의 내격인

정신적인 갈등에서 야기되는 것 즉, 억제되지 않은 자극에 의해 압도당하므로 자아가 위협받고 있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Horney⁹⁾는 불안은 대인관계 속에서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특별히 초래된다고 했고 무기력과 절망감에 대한 결과적인 감정이 불안에 대한 감정적인 경험의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고 했다. 한편 Kierreggaard¹⁰⁾는 불안을 자신의 권리에 대한 경험으로 이해하였으며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정하는 인간의 요구에 기인한다고 했다. Goldstein¹¹⁾은 개인에 대한 요구가 그의 능력을 능가할 때 생기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 보면 불안이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상황에 접할 때 생기며 개인의 안정에 위협감을 느낄 때 생기는 정서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B. 선행 연구

Tarnower(1965)¹²⁾는 입원환자가 느끼는 실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공포반응은 환자들이 주사바늘, 이상한 기구를 볼 때, 자신의 품을 타인에게 보일 때, 통통을 느낄 때, 수출을 받으려 할 때 등의 상황에서 느낀다고 했다. Brugel(1971)¹³⁾은 IPAT(Institute for personality & ability testing) Anxiety Scale로 기질불안을 측정한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불안해 한다고 했으며, Lagina(1971)¹⁴⁾의 연구에서는 불안정도를 측정한 결과 70%의 환자가 약한(mild)불안을 나타내고 입원횟수가 많은 환자가 적은 환자에 비해 불안도가 높다고 했다. Lucente와 Fleck(1972)¹⁵⁾의 불안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불안정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불안을 덜 느끼고, 입원 횟수가 많을수록 더 불안하다고 했다. 최(1974)¹⁶⁾, 김(1975)¹⁷⁾, 백(1976)¹⁸⁾의 입원생활의 짐장에 대한 연구

- 5) M.P. Neylan, "Anxiety", A.J.N., Vol. 62, No. 5 (May, 1962), p. 110.
- 6) H. Selye, "The Stress syndrome," A.J.N., Vol. 65, No. 3 (March, 1965), p. 97.
- 7) F.E. Lucente & S. Fleck, "A Study of hospitalization anxiety in 408 medical-surgical patient", Psychosomatic Medicine, Vol. 134, No. 4 (July-August, 1975), p. 305
- 8) K. Norine, "Anxiety: theoretical consideration," Perspectives in Psychiatric Nursing, Vol. 16, No. 1 (Jan.-Feb., 1978), p. 40.
- 9) K. Norine, 상계서.
- 10) K. Norine, 상계서.
- 11) G.C. Rouhani, "Understanding anxiety," Nursing Mirror, Vol. 146, No. 10 (Dec., 1974), p. 110.
- 12) W. Tarnower, "Psychological needs of the hospitalized patient", N.O., Vol. 13, No. 7 (July, 1965), pp. 28~30.
- 13) M.A. Brugel, "Relationship of preoperative anxiety to perception of postoperative pain", N.R., Vol. 20, No. 1 (Jan.-Feb., 1971), pp. 26~31.
- 14) S.M. Lagina, "A computer program to diagnose anxiety levels", N.R., Vol. 20, No. 6 (Dec.-Nov., 1971), pp. 484~492.
- 15) F.E. Lucente & S. Fleck, 전개서.
- 16) 최옥신, "입원이 불안감으로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4)

결과 수출을 받아야할 경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나; 병원규칙에 맞추어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치료가 잘못되거나 않을까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낮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고(1979)¹⁹⁾의 '불안내용' 및 정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정도가 보통(moderate)으로 나타났으며, 기질불안 중 신체적 위험상황에서 가장 불안정도가 높다고 했다. 김(1979)²⁰⁾은 환자가 입원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안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원자체', '질병자체'에 대한 불안도는 입원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 결과, 입원환자가 갖는 신체적 고통의 경감 뿐 아니라 입원불안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치료와 간호, 회복을 위한 간호장교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군 병원 입원환자의 불안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80년 ○월○일 ○통합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명을 보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추출한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B.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Lucente & Fleck가 Taylor의 표출불안척도(Taylor manifest anxiety scale)를 입원환자에게 맞도록 만든 도구로써 한국 군병원 실정에 맞도록 번역,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일반적 낙성, 불안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조사후 신뢰도계수 산출결과 $r=0.863$ 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졌다고 할수 있겠다.

C.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자료수집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각 병동 간호장교를 통해 배부한 뒤 1980년 ○월○일 부터 ○일까지인 7일에 걸쳐 회수하였다. 총 260명 중 248명(95%)의 것 이 회수되었으나 이 중 13명의 것은 일반적 특성반답

〈표-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구성비율

	특 성		인 수	비율(%)	
연령	20	~	22세	59 25.1	
	23	~	25세	163 69.4	
	26	~	28세	9 3.8	
	29	~	31세	2 0.9	
	32	~	34세	1 0.4	
	35	~	37세	1 0.4	
	계		235	100.0	
체급	이		병	22 9.4	
	일		령	96 40.8	
	상		령	69 29.4	
	병		장	28 11.9	
	하		사	17 7.2	
	중		사	2 0.9	
	상		사	1 0.4	
	계		235	100.0	
입원기간	7	일	이	내	5 2.1
	15	일	이	내	7 3.0
	1	달	이	내	22 9.4
	2	달	이	내	69 29.4
	3	달	이	내	58 24.6
	3	달	이	상	74 31.5
	계		235	100.0	
교육정도	중		졸	11 4.7	
	고		졸	122 51.9	
	대	학	휴	79 33.6	
	대	졸	학	22 9.4	
	무	응	답	1 0.4	
	계		235	100.0	
	종교	기독교	교	73 31.1	
	천주교	교	40 17.0		
	불교	교	73 31.1		
	없	음	답	44 18.7	
	기타	타	답	1 0.4	
	무응답		4	1.7	
	계		235	100.0	
	결혼상태	미혼	혼	209 88.9	
	약혼	혼	10 4.3		
	결혼	혼	13 5.5		

17) 김행자,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5권 제 2호(12월, 1975), pp. 29~37.

18) 백영주, "청년기 환자의 입원생활에 따른 긴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6권 제 1호(6월, 1976), pp. 72~79.

19) 고일선, "간호중재를 위한 불안내용 및 정도의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9)

20) 김인순, "성인 환자의 입원횟수에 따른 불안도에 관한 분석연구", 김천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 7집, 1979, pp. 217~237.

	이 혼 및 사 별 부 응답 계	1 2 235	0.4 0.9 100.0
입원한과	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계	45 24 34 65 12 18 21 5 11 235	19.1 10.2 14.5 27.7 5.1 7.7 8.9 2.1 4.7 100.0
입원경험	있 없 무응답 계	43 190 2 235	18.3 80.8 0.9 100.0
수출경험	있 없 무응답 계	44 189 2 235	18.7 80.4 0.9 100.0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켜 235명(90%)의 것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문항별 입원불안정도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입원불안 특성 적도는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자주 : 2점, 때때로 : 1점, 전혀 없다 : 0점을 주었다. 따라서 최고 불안도는 74점이 된다. 불안정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T-test, χ^2 -test를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A.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계급, 입원기간, 교육정도, 종교, 결혼상태, 입원한과, 입원경험, 수출경험을 조사하였다.

〈표-1〉에 의하면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23~25세 집단이 6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로 보아 대부분이 매우 활동적인 시기에 있는 이들이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교육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만 하겠다. 계급은 일병 40.8%, 상병 29.4%, 병장 11.9%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병과 상병이 전체 대상자의 7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원기간은 3달이상이 3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군병원의 특성인 의료에 대한 경제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51.9%로 가장 높았고, 대학후학중이 3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많아지므로 해서 환자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질적인 간호제공을 위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는 기독교, 불교가 각각 31.1%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8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입원한과는 정형외과가 27.7%로 가장 높았고, 과거 입원경험에 대해서는 입원경험이 없는 사람이 80.8%로 입원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경험도 수출경험이 있는 사람인 80.4%로 수출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 본 조사의 대상은 조암원환자이며 과거 수출경험 또한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B. 불안의 검토 및 측정

1. 불안측정

〈표-2〉는 불안의 최대득점, 최소득점, 범위,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입원불안정도는 0점~74점의 범위내에서 최대 56점, 최소 3점, 평균치

〈표-2〉 불안의 최대득점, 최소득점, 평균치, 표준편차

	최대득점	최대득점/범위	평균	표준편차
불안총점	56	3	53	21.45 10.4149

21.45, 표준편차 10.4149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환자가 입원하여 경험한 불안정도 0점~74점을 산등분하여 mild(0~24점), moderate(25~48점), severe(49~74점) anxiety순으로 본다면 약한(mild)정도의 불안이라 하겠다.

2. 불안의 구성비율

〈표-3〉은 문항별로 경험하는 입원불안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37문항중에서 「자주 불안하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문항은 「가족에 대해서」이었고 그 다음은 「장례에 대해서」이었다. 이는 김²¹, 김²²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가족에 대한 염려를 하므로 씨 심리적 불안과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결과라 하겠다. 「때때로 불안하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표-3>

문항별 불안내용의 구성비율

문 항	응답구분	자 주		때때로		전혀없다		무응답		합 계	
		인수	비율 (%)	인수	비율 (%)	인수	비율 (%)	인수	비율 (%)	인수	비율 (%)
1.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매우 긴장하게 된다.	17	7.2	147	62.6	68	28.9	3	1.3	235	100.0	
2.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잡자기가 힘들다.	14	6.0	70	29.8	145	61.7	6	2.5	235	100.0	
3. 간호장교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싶다.	12	5.1	43	18.3	173	73.6	7	3.0	235	100.0	
4. 간호장교에게 화를 내게 된다.	4	1.7	35	14.9	193	82.1	3	1.3	235	100.0	
5. 아침에 깨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6	2.6	26	11.1	198	84.2	5	2.1	235	100.0	
6. 군의관이 치료하는데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다.	13	5.6	52	22.1	162	68.9	8	3.4	235	100.0	
7. 높은 침대에서 잡을 자야 되는 것이 신경질나게 한다.	3	1.3	19	8.1	210	89.3	3	1.3	235	100.0	
8. 병원에서 개인적인 비밀이 누설될까봐 걱정이 된다.	1	0.4	31	13.2	201	85.5	2	0.9	235	100.0	
9. 자신이 어떤 실험대상처럼 치료받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11	4.7	63	26.8	144	61.3	17	7.2	235	100.0	
10. 병원의 규율과 시간업수가 자신을 괴롭힌다.	28	11.9	77	32.8	128	54.5	2	0.8	235	100.0	
11. 군의관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0	8.5	93	39.6	116	49.4	6	2.5	235	100.0	
12. 군의관이 자신에게 왔을 때 나쁜 소식을 전해줄까봐 걱정이 된다.	8	3.4	85	36.2	141	60.0	1	0.4	235	100.0	
13. 아픔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심할까봐 걱정이 된다.	21	8.9	106	45.1	105	44.7	3	1.3	235	100.0	
14. 퇴원할 때 더 좋아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27	11.5	126	53.6	80	34.0	2	0.9	235	100.0	
15. 너무 일찍 퇴원시킬까봐 걱정이 된다.	17	2.2	90	38.3	124	52.8	4	1.7	235	100.0	
16. 병원에서 퇴원해야 되는 것이 자신에게 괴롭다.	20	8.5	70	29.8	143	60.8	2	0.9	235	100.0	
17. 자신의 질병에 관해 군의관이 사설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1	13.2	76	32.3	124	52.8	4	1.7	235	100.0	
18. 병원에 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진다.	68	28.9	104	44.3	58	24.7	5	2.1	235	100.0	
19. 가 족	76	32.3	120	51.1	35	14.9	4	1.7	235	100.0	
20. 친 구	22	9.4	118	50.2	90	38.3	5	2.1	235	100.0	
21. 돈	33	14.1	86	36.6	111	47.2	5	2.1	235	100.0	
22. 질 병	44	18.7	121	51.5	63	26.8	7	3.0	235	100.0	
23. 장 태	74	31.5	104	44.2	55	23.4	2	0.9	235	100.0	
24. 죽 음	15	6.4	57	24.3	157	66.8	6	2.5	235	100.0	
25. 병원에서의 치료	13	5.5	107	45.6	110	46.8	5	2.1	235	100.0	
26. 주변 인물들	8	3.4	103	43.8	118	50.2	6	2.5	235	100.0	
27. 새로운 다른 상황	15	6.4	92	39.1	125	53.2	3	1.3	235	100.0	
28. 아 품	25	10.6	115	48.9	88	37.5	7	3.0	235	100.0	
29. 질병과 치료에 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데 대해	31	13.2	95	40.4	102	43.4	7	3.0	235	100.0	
30. 고 독 감	41	17.4	110	46.8	65	27.7	19	8.1	235	100.0	
31. 집에서 보다 가끔 악동과 나쁜 꿈을꾼다.	15	6.4	93	39.6	126	53.6	1	0.4	235	100.0	
32. 자신의 감정은 대부분의 환자들보다 더 쉽게 상한다.	28	11.9	87	37.0	120	51.1	0	0.0	235	100.0	
33. 군의관이 아프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종류와 검사에 대해 때때로 두려워 한다.	11	4.7	101	43.0	121	51.5	2	0.8	235	100.0	
34.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질망을 느낀다.	27	11.5	91	38.7	116	49.4	1	0.4	235	100.0	
35. 희망이 없다는 것이 자신에게 걱정이 된다.	26	11.1	65	27.7	139	59.1	5	2.1	235	100.0	
36. 대부분의 환자들보다 더욱더 가족에 대해 걱정을 한다.	54	23.0	107	45.5	73	31.1	1	0.4	235	100.0	
37. 희적이 되더라도 잘 일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된다.	64	27.2	108	45.1	64	27.2	1	0.4	235	100.0	
소 계	943	10.8	3191	36.7	4391	50.5	170	2.0	8695	100.0	

21) 김조자, 전계서.

22) 김정화, 전계서.

〈표-4〉

불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특성별 비율분포

불안 내용	응답구분 특성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계		χ^2 -test p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간호장교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싶다.	계							
	이 병	5	2.2	17	7.5	22	9.6	
	일 병	25	11.0	67	29.4	92	40.3	
	상 병	16	7.0	51	22.4	67	29.4	$\chi^2=27.846$
	병 장	6	2.6	22	9.6	28	12.3	$df=5$
	하 사	3	1.3	14	6.1	17	7.5	
	중 사	0	0.0	2	0.9	2	0.9	$p<0.05$
간호장교에게 화를 내게 된다.	계	55	24.1	173	75.9	228	100.0	
	계							
	이 병	1	0.4	21	9.1	22	9.5	
	일 병	13	5.6	81	35.1	94	40.7	
	상 병	16	6.9	51	22.0	67	29.0	$\chi^2=13.569$
	병 장	5	2.2	23	10.0	28	12.1	$df=6$
	하 사	1	0.4	16	6.9	17	7.4	
병원의 규율과 시간 염수가 자신을 괴롭힌다.	중 사	1	0.4	1	0.4	2	0.9	
	상 사	1	0.4	0	0.0	1	0.4	
	계	38	16.5	193	83.5	231	100.0	
	계							
	이 병	12	5.2	10	4.3	22	9.5	
	일 병	40	17.2	54	23.2	94	40.3	
	상 병	35	15.0	34	14.6	69	29.6	$\chi^2=89.970$
병원의 규율과 시간 염수가 자신을 괴롭힌다.	병 장	12	5.2	16	6.9	28	12.0	$df=6$
	하 사	4	1.7	13	5.5	17	7.3	
	중 사	1	0.4	1	0.4	2	0.9	
	상 사	1	0.4	0	0.0	1	0.4	
	계	105	45.1	128	54.9	233	100.0	
	계							
	일 원 기간							
7 일 이내	7 일 이내	0	0.0	5	2.1	5	2.1	
	15 일 이내	0	0.0	7	3.0	7	3.0	$\chi^2=11.953$
	1 달 이내	8	3.5	14	6.0	22	9.5	
	2 달 이내	32	13.7	35	15.0	67	28.7	$df=5$
	3 달 이내	27	11.6	31	13.3	58	24.9	
	3 달 이상	38	16.3	36	15.5	74	31.8	
	계	105	45.1	128	54.9	233	100.0	
병원에 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진다.	일 원 기간							
	7 일 이내	4	1.8	1	0.4	5	2.2	
	15 일 이내	1	0.4	6	2.6	7	3.0	
	1 달 이내	14	6.1	8	3.5	22	9.6	$\chi^2=20.309$
	2 달 이내	49	21.3	15	6.5	64	27.8	$df=5$
	3 달 이내	40	17.4	17	7.4	57	24.8	
	3 달 이상	64	27.8	11	4.8	75	32.6	$p<0.01$

	계	172	74.8	58	25.2	230	100.0
병원에서의 치료	입원기간						
7일 이내	1	0.4	4	1.8	5	2.2	
15일 이내	2	0.8	5	2.2	7	3.0	
1달 이내	5	2.2	16	7.0	21	9.2	$\chi^2=12.469$
2달 이내	40	17.4	27	11.7	67	29.1	$df=5$
3달 이내	32	13.9	26	11.3	58	25.2	
3달 이상	40	17.4	32	13.9	72	31.3	$p<0.05$
계	120	52.1	110	47.9	230	100.0	
새로운 다른 상황	입원기간						
7일 이내	3	1.3	2	0.9	5	2.2	
15일 이내	0	0.0	7	3.0	7	3.0	
1달 이내	11	4.8	11	4.8	22	9.6	$\chi^2=12.482$
2달 이내	27	11.6	41	17.7	68	29.3	$df=5$
3달 이내	24	10.3	34	14.6	58	24.9	
3달 이상	42	18.1	30	12.9	72	31.0	$p<0.05$
계	107	46.1	125	53.9	232	100.0	
질병	입원경험						
있다	37	16.3	6	2.6	43	18.9	$\chi^2=3.975$
없다	128	56.4	56	24.7	184	81.1	$df=1$
계	165	72.7	62	27.3	227	100.0	$p<0.05$
병원에 입원한 동안 침자기거나 힘들다.	수술경험						
있다	23	10.0	19	8.3	42	18.3	$\chi^2=6.317$
없다	61	26.7	126	55.0	187	81.7	$df=1$
계	84	36.7	145	63.3	229	100.0	$p<0.05$
새로운 다른 상황	수술경험						
있다	23	10.8	4	1.9	27	12.7	$\chi^2=13.936$
없다	83	38.9	103	48.4	186	87.3	$df=1$
계	106	49.7	107	50.3	213	100.0	$p<0.05$

타낸 문항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매우 긴장하게 된다」이었고, 그 다음은 「퇴원할 때 더 좋아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이었다. 이것은 변경된 상황에 대한 불안을 더욱 더 느끼고 있는 것임으로 입원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적혀 불안하지 않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문항은 「높은 침대에서 잠을 자야하는 것이 신경질나게 한다」이었고, 그 다음은 「병원에서 개인적인 비밀이 누설될까봐 걱정이 된다」이었다. 이것은 고²³⁾의 연구에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되어 의료인에 대한 높은 신뢰감은 보다 효과적인 간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C. 불안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1. 불안정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과 불안정도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고²⁴⁾의 연구에서는 입원경험과 불안정도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했으나, 김²⁵⁾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일반적 특성과 불-

23) 고일선, 전계서.

24) 고일선, 상계서.

25) 김정화, 전계서.

안정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2. 불안내용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여러 일반적 특성 중에서 불안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만 살펴보기로 한다.

(표-4)는 일반적 특성 중에서 불안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만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분석함에 편의상 “자주”와 “때때로”를 “불안하다”로 하고, “전혀 없다”는 “불안하지 않다”고 보아 분석하였다. 이중 계급파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간호장교에게 큰조리로 말하고 싶다」의 2문항, 입원기간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병원의 규율과 시간엄수가 자신을 괴롭힌다」의 3문항, 입원경험과 상관관계를 본 결과, 「칠병」에 관한 문항, 수술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병원에 입원한 동안 잠자기가 힘들다」는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이것으로 보아 계급이 높을수록 의료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원기간이 길수록 이들이 느끼는 병원의 규율과 시간엄수는 매우 긴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경험의 유무에는 과거 입원경험이 있는 사람의 칠병자체에 대해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수술경험의 유무에도 수술경험에 있던 사람이 수술 후 불편감 때문에 잠자리에 불편감을 더욱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병원 입원환자의 불안정도를 파악하므로써 불안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를 마련하고자 1980년 ○월○일 ○통합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입원불안의 정도는 약한(mild)정도였다.
2. 입원불안내용인 37문항 중에서 “자주 불안하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문항은 「가족에 대해서」이었고, “때때로 불안하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문항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매우 긴장하게 된다」이었으며, “전혀 불안하지 않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문항은 「높은 침대에서 잠을 자야하는 것이 신경질 나게 한다.」이었다.
3. 일반적 특성과 불안정도와의 유의성을 본 결과 모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전찬초, 전개서.

27) M.P. Neylan, op. cit., p. 110.

28) H. Selye, op. cit., p. 97.

29) S.M. Lagina, op. cit., p. 484..

4. 일반적 특성과 불안내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불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급파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간호장교에게 큰조리로 말하고 싶다」의 2문항, 입원기간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병원의 규율과 시간엄수가 자신을 괴롭힌다」의 3문항, 입원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칠병」에 관한 문항, 수술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병원에 입원한 동안 잠자기가 힘들다」는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불안은 미약한 상태에서는 환자의 불편함에 영향을 미치지만 좀더 심한 상태에서는 생리적인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는 물론 이에 대한 반응, 환자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26)~29)}. 그러므로 약한 정도의 불안이 있더라도 간호원은 환자의 불안을 초기에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불안의 잠재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1) 간호원은 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는 존엄성과 권리 를 가진 인간임을 생각하여 환자의 감정을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 2) 간호원은 환자 자신의 공포심과 불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마련하여 불안의 발생요인을 파악하므로써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 3) 간호원은 환자들에게 오락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 고 문 헌

1. 고일선, “간호중재를 위한 불안내용 및 정도의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79.
2. 김인순, “성인 환자의 입원횟수에 따른 불안도에 관한 분석연구”, 김천간호전문대학원 논문집, 제 7집, 1979, pp. 217~237.
3. 김정화, “의료팀에 의하여 발생되는 입원환자의 불안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 6권 2호(1976.12), 18~23면.
4. 김조자, “수술전 심리간호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제 2권 1

- 호(1971. 6), pp. 97~113.
5. 김행자,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 5권 2호(1975. 12), pp. 29~37.
 6. 백영주, “청년기 환자의 입원생활에 따르는 진장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 6권 1호(1976. 6), pp. 72~79.
 - 7) 이병윤, 꽈동일, 정신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8, p. 12.
 - 8) 전신조, 임상간호학의 이론과 전략,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 9) 최옥신, “입원이 불안감으로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4.
 - 10) Brugel, M.A., “Relationship of preoperative anxiety to perception of postoperative pain,” N.R., Vol. 20, No. 1(Jan.~Feb., 1971), pp. 26~31.
 - 11) Graham, L.E. & Conley, E.M., “Evaluation of anxiety & fear in adult surgical patients”, N.R., Vol. 20, No. 2(March-April, 1973), pp. 113~122.
 12. Lagina, S.M., “A computer program to diagnose anxiety levels”, N.R., Vol. 20, No. 6 (Nov.-Dec., 1971), pp. 484~492.
 - 13) Lucente, F.E. & Fleck, S., “A study of hospitalization anxiety in 408 medical-surgical patient”, Psychosomatic Medicine, Vol. 34, No. 4(July-August, 1972), pp. 304~312.
 - 14) Neylan, M.P., “Anxiety”, A.J.N., Vol. 62, No. 5 (May, 1962), pp. 110~111.
 - 15) Norine, K., “Anxiety: Theoretical Consideration”,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 16, No. 1 (Jan.-Feb., 1978), pp. 36~40.
 16. Rouhani, G.C., “Understanding anxiety”, Nursing Mirror, Vol. 146, No. 10 (March, 1978), pp. 26~27.
 - 17) Selye, H., “Stress syndrome”, A.J.N., Vol. 65, No. 3 (March., 1965), pp. 97~99.
 - 18) Tarnower, W., “Psychological needs of the hospitalized patient”, N.O., Vol. 13, No. 7 (1965), pp. 28~30.
 - 19) Volicer, B.J., “Perceived stress levels of event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development & testing of measurement tool,” N.R., Vol. 22, No. 6 (Nov.-Dec., 1973), pp. 491~497.
 - 20) William, Y.M., “Methodologic Dilemmas in tapping the concept of patient need,” N.R., Vol. 27, No. 3 (March, 1978), p. 174.
 - 21) Wilson-Barnett, J. & Carrigy, A., “Factors influencing patient’s emotional reactions to hospitaliz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78), pp. 221~229.

—Abstract—

A Study on the degree of hospitalization anxiety of hospitalized patients in the Armed Forces General Hospital

Kim, Hee Yong
Armed Forces Nursing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entify the degree of hospitalization anxiety is experienced by hospitalized patients in the Armed Forces General Hospital and to provide effective care to hospitalized patients for decoresing their anxie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ampled 235 hospitalized patients in the Armed Forces General Hospital on 'o' 19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hospitalization anxiety was mild.
2. Among the thirty seven items concerning the content of hospitalization anxiety are "Family" that are responded to "Often" with the highest rate, and "While in the hospital I feel that I am under a great deal of strain" that are responded to "Sometimes" with the highest rate, and "It makes me nervous to have to sleep in such a high bed" that are responded to "Never" with the highest rate.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egree of hospitalization anxiety & general characteristics.
4. The analysis through χ^2 -test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the content of hospitalization anxiety & general characteristics.
 -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two items in addition to "I feel like yelling at the nurses" between the content of hospitalization anxiety and rank. ($p<0.05$)
 -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three items in addition to "Hospital hours and schedules bother me" between the content of hospitalization anxiety and length of stay hospitalization. ($p<0.05$)
 -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llness" between the content of hospitalization anxiety and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p<0.05$)
 - 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 find it difficult to sleep in the hospital" between the content of hospitalization anxiety and experience of operation. ($p<0.05$)